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8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0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신성범 · 서천호
이종배 · 박충권 · 최형두
주진우 · 김상훈 · 김장겸
김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%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(최대 55%)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,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%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30억원 초과	5억9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상속세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26조(상속세 세율) ----- ----- ----- -----.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과세표준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세율>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억원 초과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</td></tr> </table>	<과세표준>	<세율>	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	30억원 초과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	<table border="1"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과세표준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세율></th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억원 초과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억9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</td></tr> </table>	<과세표준>	<세율>	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30억원 초과	5억9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<과세표준>	<세율>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																			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																				
30억원 초과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																				
<과세표준>	<세율>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
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																				
30억원 초과	5억9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																				